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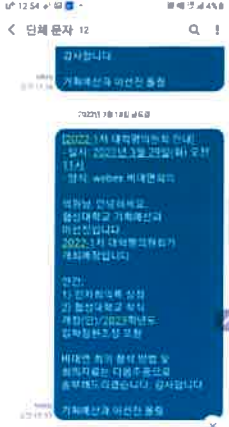


2022학년도 제1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 사전 통지	2022년 3월 17~18일(목) / 회의 개최 10일 전 통지	
<p style="text-align: center;">회의 통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게시 - 개별 문자 발송 		

1.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11:00

2. 장 소 : (온라인) 웹엑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화상 회의 개최

3. 참석의원

의장	의원 (총 10명)								
노흥식	이종문	김연상	임현석	박승규	윤성주	박학준	박경서	최희용	김동수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대학발전기여자	

- 참관 : 김완기 기획처장

- 간사 : 임수빈 기획예산과직원

4. 불참의원

- 의원 : 이길윤(동문) 이상1명

간서명	이종문	김연상	이길윤	이승규
-----	-----	-----	-----	-----

5. 심의안건 및 결과

호안	안건내용	결과
1	전차 회의록 상정	- 원안가결
2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 원안가결
3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 원안가결

6. 회의내용

노홍식의장 :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1차 대학평의원 회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안건 전차 회의록을 상정하다. 위원들에게 전차회의 록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하다.

노홍식의장 :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묻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최희용의원 : 동의하다

김연상의원 : 재청하다

노홍식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의 원 : 예

노홍식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노홍식의장 : 제1호 안건 전차 회의록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노홍식의장 : 제2호 안건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다. 학칙개정은 크게 2가지로 분 류 되며 첫 번째는 학칙 제21장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 으로 명칭변경, 제23장 제78조[절차의 생략]에서 계약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장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내용을 설명하다. 두 번째는 학칙 [별표1] 2023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변경이며 자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하다

김동수의원 : 첫 번째 제21장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으로 변경하는 변경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문하다.

김완기처장 : 명칭의 변경에 따른 운영이나 기능에 변화는 없으며, 「산학협력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변경함을 설명하다

김동수의원 : 입학정원 변경에서 경영대학을 보면 경영학도가 45명에서 50명(5명 증원), 세무 회계학도가 35명에서 37명(2명 증원), 유통경영학도가 30명에서 35명(5명 증원) 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다.

김완기처장 : 교육부에서는 정원감축을 단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 선정된 대학들은 선제 적으로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대학도 정원감축을 진 행해야하지만 선제적으로 정원감축을 진행할 시에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 기 때문에 우선 입학미충원 학과인 신학과, 음악학부에서 정원을 감축을 하고

간서명	이종분	김완기	
-----	-----	-----	---

한시적으로 학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점수 학과에 증원을 하고 추후 정원감축 시 우선 감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과와 협의함을 설명함

김동수의원 : 질문을 한 이유는 전국특성화고교가 600개 가까이 있고 그중 상업계고교가 약 60%센트이다. 대부분의 상업계학교가 신입생총원 미달이 많은 상황인데 이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영대학의 학과가 총원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확인하는 것임을 밝히다. 그리고 협성대학 경영대학이 상업계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입생 총원에 문제는 없는지 질문하다.

김완기처장 : 입학결과를 보면 경쟁률이나 총원율은 아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다.

박경서의원 : 입학정원 감축에 대하여 질의하다. 신학과 와 음악학부의 정원감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년도나 재작년도의 신학과의 미달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검토해야 감축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을 있다는 의사를 제시하다.

김완기의원 : 지금 말씀하신 최근 2년간 신학과 신입생 총원률 등 데이터 값 대하여 설명하다. 수시, 정시를 포함한 신학과의 미충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으로는 2022년 졸업을 기준으로 신학과 75명을 기준으로 30명 졸업하였음을 설명하다.

박경서의원 : 지금 말씀해주신 졸업생 현황 말고 신입생 총원 현황 데이터를 요청하다.

김완기의원 : 2021년 신학과 신입생 미충원 2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인 신입생 총원률이 97.02%로 하락하여 감점 받음을 설명하다. 또한 신학과 미충원 인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뺄 수 없으며 26명 미충원으로 인하여 4년간 누적된 104명분의 재학생 총원률 하락의 감소요인으로 대학평가 및 운영의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다.

2022년 신학과 65명 정원 중 수시·정시를 합하여 43명이 미충원이 발생하였으며, 추가모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이로 인하여 전과에 대한 전체학과장회의에서 산업디자인학과장,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에서 학장 등이 대학의 전체 이미지 및 입시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정량적(입학생총원률, 재학생총원률 등) 지표에서 감점이 컸으며, 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학의 평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안전에 대한 가결을 요청하다.

박경서의원 : 2022학년도 신학과 총원은 모두 채워졌는지 질의하다.

김완기처장 : 2022학년도 신학과 총원은 되었으나, 방금 설명한 비외 같이 추가모집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다.

노흥식의장 : 소프트웨어공학과에 증원이 5명 되었는데 이는 교육부정책에 따른 감축 시 우선 감축해야할 인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증원된 인원임을 설명하다.

단순히 신학과 인원을 타 학과에 주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설명하다.

현재 대학평가를 함에 있어 부정·비리사안과 같은 감점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

간서명	이준원	김완기	
-----	-----	-----	--



리대학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량적인 지표까지 미 충족 된다면 대학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설명하다.

신학과가 올해 어떻게든 신입생총원을 하였지만, 온전히 총원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전체 대학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다.

박경서의원 : 김완기처장, 노흥식의장을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노력함에 감사한다. 본인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무조건 감축에 대해서 절대적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단계적인 감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설명하다. 신학과는 정원의 30%, 음악학부는 정원의 20%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매년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인 감축이 올바른 방법임을 설명 및 제안하다. 이 의견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동문회장 및 관련 인원들과 상의한 내용임을 설명하다

노흥식의장 : 신학과가 우리대학의 시작이자 모체임은 본인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대학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타 학과가 신학과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원감축이 아니라 폐과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학과만이 아닌 대학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심을 부탁하다. 신학과의 경쟁률 등 회복이 된다면 다시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 또한 설명하다.

박경서의원 : 앞으로의 한국교회나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의 증원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다.

김동수의원 : 삼일공업고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공유경제시스템학과가 있다. 이번 이사회에 폐과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신입생 총원 미달이 되어서가 아니다. 2025년도에 대학민국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됨에 따른 대비이다. 교육부 또한 지속적인 구조 조정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정원감축이 아닌 폐과라는 칼을 빼들은 것이다. 이제는 교육인원에 대하여 감축이 아닌 정리를 하고 추후 경쟁력이 생기면 그에 맞는 증원 등과 같은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제 생각 또한 지금은 당장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아플지 모르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박경서의원 : 기획처장에게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신학과나 행정관련 자들과 논의된 사항인지 질의하다.

김완기처장 : 신학과 지체 조정(안)을 업무연락으로 받았다고 설명하다.

박경서의원 : 그렇다면 신학과에서 동의를 한 것인지 질의하다.

김완기처장 : 신학과의 업무연락이 없이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는 점을 설명하다.

노흥식의장 : 학과의 인원조정은 학과의 논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설명하다.

김완기처장 : 음악학부, 신학과에 정원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해당학과 학장의 업무연락 회신자료를 받아 진행한 것임을 설명하다.

간서명	김완기	노흥식	박경서	김동수
-----	-----	-----	-----	-----



김연상의원 : 교내 구성원으로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미 선정 결과로 발생하는 여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비교과프로그램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선정,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미 선정으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못 받게 됨으로써 비교과 운영을 못하게 되고 또한 지원인력까지 퇴사를 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지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온전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나아가 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미 선정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원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설명하다.

현재 상정된 정원조정(안)은 그냥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인 협의를 했을 것이고, 최근 총원을 등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상정된 정원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표명하다.

박경서의원 : 본인은 본 안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신학과 입학정원 중 1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개의(改議)를 요청하다. 이 사항은 총동문회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하다.

노흥식의원 : 박경서의원께서 개의(改議) 요청이 있으므로, 신학과 입학정원 10명을 감축하는 것에 대학 개의(안)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 투표 진행을 요구하다.
방식은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사인 임수빈직원의 개인 채팅으로 찬성, 반대의견을 주시면 취합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제안하다.

[박경서의원 개의(안) 신학과 입학정원 10명 감축으로 변경에 대한 투표 진행]

노흥식의원 : 투표결과 출석인원 10명 중 1명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박경서의원이 요청한 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노흥식의장 :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묻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김동수의원 : 동의하다

김연상의원 : 재청하다

노흥식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의 원 : 예(박경서의원 제외)

노흥식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노흥식의장 : 제2호 안건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노흥식의장 : 제3호 안건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을 상정하다. 자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하다.

노흥식의장 : 현재 대학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에 따른 학과평가 내용과 같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김완기처장 : 질문주신 사항보다 먼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대학은 대학구조조

간서명	이종문		
-----	-----	--	---

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조차 없다는 점이다. 우리대학 규모와 비슷한 대학을 조사 해봐도 70% 이상이 대학구조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대학평가를 받는데 있어 대학구조조정 규정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학과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다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으로 2022년 3월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 규정 신설(안)을 통과하였음을 설명하다.

노흥식의장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학과조정과 같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지 질의하다.

김완기처장 : 이전까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정량지표인 신입생총원률, 재학생총원률, 취업률로 평가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하다.

김동수의장 :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중 제6조[구조조정 기준] 1~2항에 다른 추가 기준을 마련하여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다.

지금 규정에 바로 적용이 하지 않더라도 추후 검토가 된다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다.

김완기처장 : 대학구조조에 관한 규정은 운영과 개발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할 것이며,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노흥식의장 :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묻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김동수의원 : 동의하다.

이종문의원 : 재청하다.

노흥식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의 원 : 예

노흥식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노흥식의장 : 제3호 안건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노흥식의장 : 회의록 간서명인으로 김연상의원, 이종문의원, 박승규의원을 추천하다.

전 체 의 원 : 찬성하다.

노흥식의장 : 2022-1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폐회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다.

김동수의원 : 동의하다.



김연상의원 : 재청하다.

노흥식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의 원 : 예

노흥식의장 : 2022-1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 폐회 12:10 -

간서명	이종문		
-----	-----	---	---

의 장 :

노 흥 식 (인)

의 원 :

이 종 문 (인)

김 연 상 (인)

임 현 석 (인)

박 승 규 (인)

윤 성 주 (인)

박 학 준 (인)

박 경 서 (인)

최 희 용 (인)

김 동 수 (인)

학
생
회
학
정
서
최
희
용
김
동
수

회의 사진

